

위덕왕[威德王]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중흥을 꿈꾸다

525년(성왕 3) ~ 598년(위덕왕 45)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위덕왕(威德王)은 백제의 제27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54년~598년이다. 관산성 전투의 패배와 성왕(聖王)의 죽음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즉위해 집권 초기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다. 그러나 부왕의 정책과 권위를 계승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내외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로써 백제는 다시 한 번 중흥을 꿈꾸게 되었다.

2 태자시절의 활동과 즉위 과정

위덕왕의 이름은 창(昌)이다. 이름을 따서 창왕(昌王)이라고도 하며, 시호는 위덕(威德)이다. 525년(성왕 3) 성왕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동생은 뒤이어 즉위한 혜왕(惠王)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위덕왕의 자식에 대해 전하는 바가 없으나, 부여 왕흥사지(王興寺址)에서 발견된 청동 사리함의 명문에는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을 세웠다”고 하여 일찍 사망한 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위덕왕의 아들로 아좌태자(阿佐太子)가 기록되어 있다. 아좌태자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스승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인 ‘쇼토쿠 태자와 두 왕자상’을 그렸다고 한다. 위덕왕은 554년부터 598년 사망까지 45년간 백제를 다스렸다.

위덕왕은 태자 시절부터 성왕을 도와 군사활동에 나섰다. 그 구체적인 활약상을 성왕 말기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3년(성왕 31) 태자 여창은 나라 안의 병사를 모두 징발하여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당시 29세의 젊은 태자는 백합야(白舍野)에서 고구려군을 크게 물리침으로써, 성공적으로 고구려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한 보복 공격도 위덕왕이 주도했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회복했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에게 다시 빼앗긴 상황이었다. 태자 여창은 기로(耆老, 원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를 공격하여 관산성(管山城)에 보루를 쌓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성왕은 아들의 노고를 위로하러 가다가 도중에 복병을 만나 죽음을 맞고 만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는 보루의 정상을 이루게 되자 신라 군이